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9. 7.(일) 0시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원예작물과장	고순보	☎ 760-7450
		업무담당자	정권문	☎ 760-7455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 맞춤형 조생 브로콜리 농가 실증시험 본격 추진

- 애월지역 2개소에서 3계통 실증·재배 안정성과 병해 저항성 등 종합 검증 -

□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고상환)이 수확기가 빠른 조생 브로콜리 신품종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에 본격 착수한다.

○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선발한 3개 계통(제주Br-9호, 10호, 11호)을 대상으로 애월지역 농가 2개소에서 실증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제주도는 전국 브로콜리 재배면적의 약 70%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. 주요 생산시기는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며, 수확 후 저온 저장을 통해 5월까지 출하가 이어진다.

* 제주지역 '23년 브로콜리 재배면적 1,262ha, 생산량 16,401톤

○ 브로콜리는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로 과거에는 전량 외국산 종자를 사용했다. 그러나 2022년 육성한 만생종 품종(1~2월 생산) ‘삼다그린’의 농가 보급을 통해 2024년 해당 품종 면적은 47ha로 확대됐다.

□ 이번에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3개 계통은 기존 수입산 조생품종과 비슷한 시기인 11월부터 12월에 수확이 가능하며, 지난해 문제가 됐던 검은무늬병에도 비교적 강한 특성을 보였다.

○ 특히 제주Br-9호와 10호는 청록색이 진하고 구가 단단해 상품성이 높았으며, 제주Br-11호는 색은 다소 연하나 줄기가

가늘고 길어 수확이 쉬운 장점이 확인됐다.

- 농업기술원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실제 농가 재배 환경에서 수확기, 병 저항성, 상품성, 수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.
- 그 결과 가장 우수한 1계통을 선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국산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종자 수입 의존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.
- 정권문 농업연구사는 “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조생 품종을 육성하고, 향후 국산 브로콜리 품종 자립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